

## B형 간염에 의한 신증 발생에 대한 B형 간염 백신의 효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문윤희 · 정혜전 · 김성도

**목적 :** B형 간염은 한국에서 흔한 질환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B형 간염 백신은 1983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되어 왔다. 막성신증 (Membranous nephropathy, MN) 그리고 막증식성신증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opathy, MPGN)은 B형 간염의 발병과 연관된 흔한 신증이다. 연구된 바에 의하면 막성신증의 환자 중 80%가 B형 간염 보균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B형 간염 유발 신증과 B형 간염 백신의 시행에 관해 연관성을 밝히는 데 있다.

**대상 및 방법 :** 1986년 6월부터 2005 12월까지의 임상적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막성신증 또는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으로 보이는 42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B형 간염 검사는 radioimmunoassay를 이용해 검사하였다.

**결과 :** 1985년 1월과 2004년 1월 사이에 20명은 막성신증으로 진단받았고 22명은 막증식성 신증으로 진단받았다. 그들 중 막성신증 환자의 5명 (25%) 그리고 막증식성신증의 환자 중 1명 (4.5%)은 B형 간염 항체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들은 모두 B형 간염의 가족력이 있었다. 이 중 3명은 HBeAg가 양성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전신적인 부종을 보이는 신증후군 증세도 보이고 있었다. HBV-MN 환아는 interferon alpha의 정맥주사 치료를 받았고 HBV-MN 중 1명 그리고 HBV-MPGN 중 1명은 corticosteroids 치료도 받았다. HBV-MN 환자 중 2명은 interferon alpha 치료를 받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HBV-MN 환자 1명은 단백뇨나 혈뇨 없이 관해 상태를 보였다.

**결론 :** 이번 연구에서 HBV 백신의 효과로 B형 간염 보균자의 비율은 80%에서 25%로 감소하였다. B형 간염의 전염과 그에 유발된 신염은 모체에서 수직감염된 경우나 가까운 가족을 통한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HBV-GN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체에서의 수직감염을 예방하며 고위험 태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항체검사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MN과 MPGN은 아직 원인이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비감염성 GN의 원인과 그에 대한 치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